

늙어가는 한국 … 70대 이상, 사상 처음 20대 인구 추월했다

17개 시도 중 대전·서울 등 8곳, 인구 20%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이 심각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해 확 늙어버렸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한 것이다.

그 여파로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생산 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국가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미래 한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행정 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619만 7486명) 인구를 넘어섰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70대 이상 인구(608만여명)는 20대 인구(641만여명)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전년

보다 23만여명 불어나긴 했지만, 20대 인구는 약 22만명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도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어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 13.2%, 2020년 16.4%, 2022년 18.0%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통계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8곳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226개 시·군·구별로 살펴보

면 사회에 진입했다. 2022년 고령 사회로 분류됐던 충북과 경남이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포함되면서 45곳이다.

대구와 서울, 제주, 대전 등 나머지 8곳은 고령 사회로 분류됐다. 유일하게 세종만이 고령 인구 비율이 11.0%로 고령 사회 기준(14%)에 못 미쳐 고령화 사회에 해당했다.

인구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 여명으로 전년 대비 0.22%(11만3000여명) 감소했다.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 추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2556만 여명)는 5년 연속, 여자(2575만여명)는 3년 연속 감소했다.

이정복 기자

중기부·행안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혁신 공모사업' 공동 추진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모집을 공동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 사업(SW사업, 중기부)과 지방소멸 대응기금(HW사업, 행안부)을 연계해 지역 기업과 일자리 중심의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해 과제당 1000

만 원 상당의 투자계획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기획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일자리 창출은 지역 내에 기업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와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부터 부처 간 정책과 지자체의 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도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기초 지자체가 주도해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HW사업)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 사업(SW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이번 공모계획 및 제출 양식 등은 행안부, 중기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www.tjpa.or.kr)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정한 기자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1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공동성명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증권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티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했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

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12월 임시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티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했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

만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행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병배기자

청년마음건강연구소 C-LAB 씨랩

내 마음도 미리 검진하세요 [성향검사 / 팀빌딩 / 강연 / 온라인상담]

instagram 인스타 @c.lab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씨랩마음단지

1. 개인

온라인성향검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1대1상담
진로상담, 성격상담, 심리상담

2. 팀

팀빌딩 (MBTI / 버크만)

3. 강연/강의 (학교/복지센터/센터/중소기업/기타단체)
진로 / 스트레스 / 마음건강기획_테마에 따른 / 성향·성격 등



C-Lab
청년마음건강연구소

문의)
네이버 블로그/인스타 DM
메일 - clabclab_10@naver.com
문자전화 - 070-8098-1834

국민의힘 32.4%, 민주 28.7%, 이준석 13.9%, 이낙연 8.7%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신당 포함 정당지지도

현재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 힘 32.4% ▲민주당 28.9% ▲지지 정당 없음 21.1% ▲기타 정당 8.2% ▲정의당 1.8% 순으로 나타났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준석과 이낙연 중심으로 각각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어느 당을 지지하겠나'고 물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이어진 이준석, 이낙연 신당을 포함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힘 32.4%, 더불어민주당 28.7%, 이준석신당 13.9%, 이낙연신당 8.7%, 기타정당 2.9%, 지지정당 없음 10.0%로 나타났다.

이준석신당 지지율(13.9%)과

이낙연신당 지지율(8.7%)을 더하면 두 신당 지지율이 226%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정당지지도와 신당을 포함한 조사를 비교할 때, 국민의 힘은 38.4%에서 6%가 빠진 32.4%로 다소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9%에서 0.2% 빠진 28.7%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다만 지지정당 없다고 응답한 21.1%에서 11.1%가 빠져서 10%로 크게 감소했다.

연령별로 18~29세에서 이준석 신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3%로 가장 높았고, 50대 16.9%, 60대 13.5%, 30대 12.6%, 70대 이상 12.3%, 40대 10.4% 순이었다. 이낙연신당을 지지하는 연령대는 70대 이상에서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40대 7.5%, 18~29세 7.4%, 30~60대 7.0%, 50대 5.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이준석 중심의 신당을 지지 비율이 1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호남권 15.5%, 부산·울산·경남 14.2%, 인천·경기 13.1%, 서울 13.0%, 충청권 9.8% 순이었다. 이낙연신당은 서울에서 11.6%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 8.6%, 부산·울산·경남 8.4%, 호남권 8.1%, 인천·경기 7.9%, 충청권 6.5% 순이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불사 긍정평가는 41.3% 이주 잘함 27.4%+다소 잘함 13.9%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6.7% 이주 잘 못함 49.6%+다소 잘못함 7.1%, 잘모름·무응답은 1.9%였다.

연령별로 70대 이상(긍정평가 61.4%, 부정평가 33.9%)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윤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았다. 특히 40대 부정평가

66.0%, 18~29세(64.3%), 50대 (58.9%), 30대 (57.8%), 60대 (55.7%)로 나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 10.2%, 무선 ARS 89.8%로 병행 조사됐다.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3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행복청, 사업별 공정 및 재정집행 관리체계 구축

체계적인 종합사업관리와 안전점검으로 도시건설 '효율과 안전' 잡는다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등 주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올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종합사업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주도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행복도시 건설은 정부·지자체·신하기관·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수의 사업이 동시에 대발적으로 추진되다는 점에서 여타 신도시 개발과는 차별화된다. 이에 행복청은 2007년 도시건설부문 최초로 복합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법인 '종합사업관리관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는 전체 사업을 총괄함과 동시에 각 세부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최소의 비용과 최고의 품질로 건설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한다.

특히, 입법과 국정 운영이라는 국가기증추기능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스마트한 미래도시 모델이자 실질적 행정수도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행복청은 이를 사업마다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부문별로 공정 및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참여주체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행복청은 세종시, LH 등 관계 기관과 협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보강하는 한편, 동절기·해빙기·장마철 등 취약 시기에는 각 현장의 공정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 건설환경 정비 캠페인 등 다양한 안전교육 및 행사를 실시하여 건설관계자의 품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세종=김태선기자

안민석 의원,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제정법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학생(느린학습자) 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 경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기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족별·

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인민석 의원은 "학부모와 함께 사회적 공론화를 시키는 데 성과를 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와 대책은 미흡하다"며 "올해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평생교육 기틀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국정감사 질의와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

고 교육부와 지자체 지원 대책을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에는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국제인(안민석 대표발의)을 통과시켜 현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교육당국의 협력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민석 의원은 "학부모와 함께 사회적 공론화를 시키는 데 성과를 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와 대책은 미흡하다"며 "올해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평생교육 기틀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된 '2023년 행정분야 복지위원회 공무부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제1차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했다.

서산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0일 제291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 첫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는 3일간 일정으로 2024년 업무보고·청취와 조례안 4건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조례안(이상 김용경 의원) ▲서산시 항공방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안호준 의원)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된 '2023년 행정분야 복지위원회 공무부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제1차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했다.

김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291회 임시회는 서산시가 올해 나아갈 방향인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시민들께 알리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산을 함께 만들어 갈 기회"라며 "서산시의회도 시민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성환기자

김연수 전 대전 중구의장, 중구청장 출마 공식 선언

"낙후된 중구를 다시 부흥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



한다"면서 "짧은 시절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사망·열풍과 모래바람에 맞서 싸우며 모진 고통을 이겨내고 기난을 물리친 것처럼 국기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희망찬 중구로 빛나도록 힘써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민과 동고동락하며 중구를 위해 몸 밭은 일꾼이자 중구를 잘 알고 의정활동으로 경증된 민족 행정 공백 없이 첫날부터 의숙하게 헌법 넘치는 중구로 재건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연수 국민의 힘 중구청장 예비후보는 "대전 중구는 노인 인구가 22%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장기적인 중구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대전의 중심 중구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주민과 공직자 및 정치가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연수 국민의 힘 예비후보는 의원직에서 물려난 후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권익 보호를 위해 밤로 뛰고 있다.

실제로 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장진흥공단의 유흥 이전소식에 한달에 걸친 반대 시위를 하며 소상공인들의 동의없는 이전을 중단시키며 상권붕괴를 막아내는데 앞장섰다.

독거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반찬을 조리하고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하고 있다.

김연수 국민의 힘 예비후보는 "유능한 교사는 잘 가르치고, 훌륭한 교관은 스스로 해보이고 위대한 리더는 기습에 불을 지른다"면서 "준비된 구청장 후보인 자신의 기습에 불을 질려달라. 구민들의 뜻에 따라 구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복기자

안장현 충남도의원, 출판기념회 관행 개선에 출선 수범

"봉투를 받지 않으며, 날개로 현장 현금 판매한다"

지난 7일, 은양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안장현 충남도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많은 아산시민들과 충남도의회, 인근지역 의원단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당초 저자인 안장현 측에서는 출판기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참석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행사 참석안내 초청장에 "봉투를 받지 않으며, 날개로 현장 현금 판매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현장 도서판매 자원봉사자에게

심층교육을 사전에 실시했고, 행사를 방문하는 도서구매 희망 참석자에게 도서 정가(2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내하고 구입 금액을 봉투에 담아 도서판매자원봉사자에게 주면, 도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날개판매와 현금거래는 다소 복잡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로 행사에 방해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행사에 방해가 될 수도, 도서구매 희망자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이러한 원칙은 최초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된 순간부터 저자(안장현)에게는 불변의 기준이었으며, 관행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가 출판기념회에 접근하기 쉽고, 작은 축제 현장처럼 누구나 함께 즐기고, 공감하고, 가치관을 공유 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자 안장현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저자와 시민간의 소통의 공간이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시도로부터 시작하여 그동안의 관행이 개선되고 시민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풍토 조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신 도서 구매자 중 일부가 고액의 봉투를 놓고 가고, 구매자 확인이 불가능한 일부 무기명 봉투가 발견됨에 따라, 저자와 출판기념회 준비단에서는 회의를 통해 아산시선기관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해 고액의 봉투와 무기명 봉투에 대한 조치방법을 상담했으며, 선관위로부터 자체 조치에 대한 답변을 통보받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사회적 기부를 결정해 관련 기관인 아산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방법 등을 논의하고 현장 기부조치였다.

저자 안장현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저자와 시민간의 소통의 공간이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시도로부터 시작하여 그동안의 관행이 개선되고 시민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풍토 조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시 성환읍 신방리가 고장인 정황근 전 장관은 서둘대 농협과를 졸업하고 제2회 기술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농림분야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식품부 대변인,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조병교수, 새국농림기상센터 이사장을 지냈다.

이정복기자

련한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9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이기순 전 차관은 이날 오후7시 세종시 비오케이 아트센터에서 자신이 저술한 '너의 꿈을 응원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이기순은 "대전 중구는 노인 인구가 22%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장기적인 중구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대전의 중심 중구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주민과 공직자 및 정치가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한 이야기를 담백한 문체로 풀어 냈다.

특히,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 전 차관과 오랫동안 윤석열정부에서 활동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및 중앙부처 시장 연을 맺은 국민의 힘 송석준의원, 최승재의원, 등이 참석하고 김금재 전 여성가족부 장관, 윤여표 충북대 및 대전대 총장 등과 지역 시민 등이 대거 참석하면서 대성황을 이뤘다.

박영순 의원, 국비 확보 기여 공로 '감사패' 수상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전시 주요 현안 사업 증액에 결정적 기여



“극세척도의 자세로 역동하는 서산 이끌 것”

<克世拓道>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

이완섭 서산시장이 10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국제적인 정세불안 속에서도 역동적인 시정을 펼친 한 해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주요 성과로 ▲서산공항 기본계획 수립 착수 ▲국제 크루즈선 취항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대산~당진 구간 건설 사업 착공 ▲문화예술타운 입지 선정 및 후속절차 착수 ▲제14회 아시아 조류박람회 개최지 확정 등을 꼽았다.

이어, 2024년이 세계적 경제 위축과 안보 리스크, 정부의 정부예산 운용 기조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을 강조하고 역동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10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10대 중점과제는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 많은 도시 ▲농어민이 행복한 환경 조성 ▲서해안 시대의 허브로 거듭나는 서산시 ▲활액 넘치는 지역개발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 실현 ▲시민의 건강한 삶의 기반 확충 ▲문화예술 저변 확대 ▲매력적인 관광도시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시민 중심 안전 보호망 구축 등이다.

첫 번째로,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확정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대산 임해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용역, 부석면 일원에 그린 UAM(도심항공교통)-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농어민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운영 등과 함께 어촌 뉴딜 300사업을 완성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 서해안 시대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본궤도에 오른 서산공항의 2028년 개항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제 크루즈선이 유치된 대산항 여객터미널 개장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활액 넘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시청사

최종입지 선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읍내동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 동문동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공, 양대선·기오선 등 주요 도로망 착공 등을 추진한다.

특히, 중앙호수공원 옆 예천동 1255-1번지 일원에 복종 주차장을 갖춘 잔디광장인 (가칭)초록광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로,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보호수당 두 배 인상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생활안전 프로그램 운영과 고독사 방지 AI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기반 확충을 위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원공, 풍전·산수 저수지 둘레길 조성, 맞춤형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곱 번째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타운에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충청분원, 시립미술관, 서산문화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흥행을 기록한 서산해미읍성축제를 국제 규모의 축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여덟 번째로,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위해 동부·중부·서부

의 3개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관광사업 추진하고 함께 지역 축제의 컨텐츠를 다양화하는 한편, 해미국제성지의 세계 명소화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운산 한우목장 웨딩 산책로와 해미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사업의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홉 번째로,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로림만 갓벌식생 복원사업과 응도 갓벌생태 복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등을 추진해 탄소중립을 앞당길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민 중심 안전 보호망 구축을 위해 재해위험지 구 개선, 집중호우 첨수 방지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기하고 종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회 운영 등으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함께가는 길에 나와 남의 구분이 없고 오직 우리만이 있을 뿐이다”라며 “시민과 함께 ‘극세척도’의 자세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서산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산 =김정한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



●정정●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김태 흠 충남 도지사= 11일 오전 11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에 참석.

직속기관장 협의회



김태 철 충남 도교육감= 11일 오전 10시 30분 충청 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열리는 직속기관장 협의회에 참석.

의용소방대 대장합동이·취임식



최재구 예산군수= 11일 오전 10시 추사 홀에서 열리는 의용소방대 대장 합동이·취임식에 참석.

이사회



이용록 흥성군수= 11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제1회 (재)흥주문화관광재단 이사회에 참석.

2024 원팀 겨울특강 진행

노벨상 수상자 볼프강 케털리 (Wolfgang Kettler) 교수는 지난 9일 세종에서 열린 원팀 특별강연에서 양자과학의 이해를 통한 미래 투자 가치, 미래인재 양성 등을 강조했다.

2024 원팀 겨울특강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4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자산업 육성 공동선언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또 최민호 시장이 작년 초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세계 양자과학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MIT와 하버드대 교수진을 만나 양자 인재 양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협의한데 따른 첫 성과물이기도 하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케털리 교수는 국제온원자로 구성된 양자 기체 시스템(양자 시뮬레이터)의 창시자이다.

1995년 국제온원자로로 구성된 보즈-아이슈타인 응집체를 구현해 2001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날 특강에선 '양자과학기술과 미래'를 주제로 아직은 생소한 양자과학 기술이 미래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연했다.

케털리 교수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양자과학"이라며 "보즈-아이슈타인 응집체 구현 이후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초진도체, 양자컴퓨터 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과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여러 산업으로의 확장, 국제적 협업이 가능하며 더 넓게 협력하면 이 분야를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케털리 교수는 "모든 연구에는 깊은 학생들, 연구원들이 참여했고 그들은 과학의 미래"라며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한국과 같은 나라가 교육과 연구에 투자한다면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그 결과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道, 220만 힘으로 더 높이 도약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실국별 과제 보고 및 토론

민선8기 힐끗 충남이 지난 1년 반 동안 올린 성과와 220만 도민 뜻을 모아 더 높이 도약한다.

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희 지사와 김기영·전형식 행정·정부부지사, 충남부부장, 공공기관장,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정책·자문위원, 정책특별보좌관, 도민평가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실국별 주요 업무 계획 및 실국장 직무상과 계약과제 보고, 토론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실국별 주요 업무를 보면, 기획조정실은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확보를 위해 종력을 다하고, 공공기관 경영 혁신을 통해 공공 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지역·대학 협력 기반 고등교육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안전실은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제도·정책 본격 추진, 지방재정 악화, 재난재해 복잡·대형화 등의 여건을 감안,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및 실현력 확보 △안정적 재정 운영 △재해 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 및 안전점검 기능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잡았다.

소방본부는 올해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 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보령 해저터널 특수 전담 구조대를 신설한다.

또 충남 소방헬기 2호기 제작에 본격 돌입하고, 충남소방복합시설은 연내 준공과 함께 본격 가동기로 했다.

산업경제실은 '산업의 집적화·융합·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견인'을 운영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첨단반도체산업(후공정) 선점을 위한 기틀 마련 △디스플레이 '초격차·신격차·고격차' 확보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기반 구축 △첨단 바이오산업 국내 선도 모델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에 대해 2027 충청권 하계 대학경기대회 준비를 본격화하고, 충남스포츠센터와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천주교유산 명소화 한옥건립 확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화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재편 기속화 △탄소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신산업 발굴 및 미래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기반 과학기술 대체 산업화 촉진 △지역 산업 연계 신산업 육성 등도 주요 업무로 내놨다.

경제 성장을 견인할 투자 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충남경제위기 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며, 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용지 적자 공급,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및 창업 생태계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한다.

투자증진정책은 올해 외자유치 목표를 30억 달러로 잡고 글로벌 세일즈 활동을 전개키로 했으며,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을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와 국제에 기반한 공공 외교를 지속적으로 펼친다.

복지보건국은 △균형있는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립 △지역 지원 등을 통한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 △국립의료연구원 설립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대학병원 설립 △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장애인기족 힐링센터 건립 등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광역 충남 가족센터 설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청년정책관은 △안서동 대학로 조성 △경제적 위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세웠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이(es)포츠경기장과 의병기념관, 예술의 전당, 충남미술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공립예술단 통합과 도립화를 중점 추진한다.

이에 대해 2027 충청권 하계 대학경기대회 준비를 본격화하고, 충남스포츠센터와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천주교유산 명소화 한옥건립 확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을 이끌 농림축산국은 △청년 농창업 및 정착 영농 환경 구축 △스마트 농법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농업 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주요 업무로는 △금융 및 영농비 지원 등 청년농 육성 지원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및 원예작물 복합단지 조성 △시설원예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준비 △인접 광역 시도 균형발전 공동체 구축 △충남혁신도시 완성 및 정주환경 개선 △충남형 지방소멸 대응 모델 마련도 주요 업무로 추진한다.

또 △충청권지방정부연합 출범과 △환경해권 사업 공조 확대 △인접 광역 시도 균형발전 공동체 구축 △충남혁신도시 완성 및 정주환경 개선 △충남형 지방소멸 대응 모델 마련도 주요 업무로 추진한다.

해양수산국은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가로림만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 및 해양생태 루트 조성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마리나산업 육성 △격렬비열도 연안항 개발 △디포직 보령신항 조기 원공 △당진평택국제항 물류환경 개선 및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간척지 첨단 양식단지 조성 △탄소중립 수산식품 수출 클러스터 조성 △시천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세웠다.

기후환경국은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체계 확립 △메탄 감축 모델 마련을 통한 국가 정책 선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협력 강화 △장장 국가기후자본 원사업 본격 추진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 및 대기오염 물질 관리 강화 △탈 플라스틱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등을 주요 업무로 세웠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온실가스 촉진기 설치·운영 △보건환경정 보플랫폼 구축 △인체노출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조사 다각화 등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국은 △보령~대전 고속도로·충청내륙철도 등 새로운 도로·철도망 구축 △지방도 정비 사업 신속 추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반 조성 △충남형 리브루게더 공급 등을 10대 역점 과제로 내놨다.

'도내 어디서나 살기 좋은 힐끗 충남 견인'을 목표로 정한 균형발전국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수도권과 국방·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팔을 걷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 △충청권지방정부연합 출범과 △환경해권 사업 공조 확대 △인접 광역 시도 균형발전 공동체 구축 △충남혁신도시 완성 및 정주환경 개선 △충남형 지방소멸 대응 모델 마련도 주요 업무로 추진한다.

해양수산국은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가로림만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 및 해양생태 루트 조성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마리나산업 육성 △격렬비열도 연안항 개발 △디포직 보령신항 조기 원공 △당진평택국제항 물류환경 개선 및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간척지 첨단 양식단지 조성 △탄소중립 수산식품 수출 클러스터 조성 △시천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세웠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태희 지사는 "민선8기 3년 차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더 크게 도약해야 하며, 도민 여러분께 기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특히 농업·농촌 구조 개혁,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충남혁신도시 완성 등 주요 현안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민관련 유치 등 새롭게 생긴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관광객 증가에는 예산군을 주변 관광 개발 사업 일환으로 △예당호 수변 부대 △예당호 쉼터 우수 △예당호 모노레일이 제 역할을 톡톡히 했고, 지난해 12월 100만명 방문 대비 24만8000명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관광객 증가에는 예산군을 주변 관광 개발 사업 일환으로 △예당호 수변 부대 △예당호 쉼터 우수 △예당호 모노레일이 제 역할을 톡톡히 했고, 지난해 12월 100만명 방문 대비 24만8000명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군에 따르면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은 예당호 출렁 다리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동안 127만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전년 100만명 방문 대비 24만8000명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예산군은 지난해 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34만명이 늘어난 355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 종료 이후 해외여행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국내 관광이 위축된 가운데 이를 성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은 예당호 출렁 다리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동안 127만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전년 100만명 방문 대비 24만8000명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예산군은 지난해 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34만명이 늘어난 355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지난해 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34만명이 늘어난 355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예산군은 지난해 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34만명이 늘어난 355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예산군은 지난해 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34만명이 늘어난 355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예산군은 지난해 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34만명이 늘어난 355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예산군은 지난해 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34만명이 늘어난 355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예산군은 지난해 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34만명이 늘어난 355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예산군은 지난해 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34만명이 늘어난 355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예산군은 지난해 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34만명이 늘어난 355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예산군은 지난해 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34만명이 늘어난 355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예산군은 지난해 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34만명이 늘어난 355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예산군은 지난해 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34만명이 늘어난 355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예산군은 지난해 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34만명이 늘어난 355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예산군은 지난해 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34만명이 늘어난 355만명을 돌파했다.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회망성금 320만3500원 기탁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가 지난 9일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회망 2024나눔캠페인 성금 320만 3500원을 전달했다.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직원들과 싱싱한 성금을 모아 세종시 사랑의온도를 올리는데 동참해 오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영 세종종목금회 팀장, 이경아 사무처장, 위성환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부장, 기은남 차장, 박주훈 실장.



우리/동/네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4.5% 할인

천안시,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신청 받아



천안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읍면동 업무 담당자 지침 교육

천안시는 지난 9일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시업부서 및 읍면동 업무 담당자 40여 명에게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최유미 총남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단 단장이 강사로 나서 사회서비스의 개요, 세부지침, 2024년 총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기준정보 등을 교육했다.

천안시는 올해 274억 원을 투입해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청년 등 3,1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불당1동, 취약계층 15가구 대상으로

새해 맞이 든든한 한끼 선물

천안시 불당1동 행복가움지원단(단장 김진영)은 10일 취약계층 15가구를 대상으로 '든든한 한끼 나누기, 행복한 마음 더하기' 밀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복키움지원단은 밀반찬을 직접 대면 전달하며 대상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생활상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등 지역사회복지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나눔 대상자는 작년보다 5가구 늘어난 15가구로 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밀반찬 지원받은 한 대상자는 "반찬 오는 날만 기다린다"며 "몸도 성치 않아서 혼자 밥상 차리기가 어려운데 매번 갖다주는 반찬이 밥한 끼 먹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근혁 동장은 "추운 날씨에 외롭게 지내시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운기가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처럼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함께하는 사랑밭 천안지부, 백석동에

취약계층 위한 식품세트 지원

천안시 백석동(동장 정우영)은 10일 (사)함께하는 사랑밭 천안지부(지부장 한미영)가 취약계층을 위해 식품세트 100박스(5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함께하는 사랑밭 천안지부는 2019년부터 백석동과 인연이 달아 저소득층을 위한 생필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한미영 천안지부장은 "백석동에 꾸준히 후원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과 가치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정우영 백석동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 주시는 (사)함께하는 사랑밭 천안지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원해주신 물품은 대상자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는 이달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연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다. 연납 후 소유인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 방법이 달라졌으며, 단계적 조정을 통해 연별 공제 폭이 줄어들게 된다.

올해에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4.5%, 2025년 이후에는 2.7%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한번 신청하고 납부 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 신청된다. 지방세 자동

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4.5%, 2025년 이후에는 2.7%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한번 신청하고 납부 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 신청된다. 지방세 자동

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4.5%, 2025년 이후에는 2.7%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시민들이 연납 신청·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박상돈 천안시장
= 11일 오전 10시
중앙동 행정복지센
터, 오후 2시 문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열리는 2024
읍면동 방문에 참석.

천안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5억 부과

천안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531건에 25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6만8,468건, 24억 원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사업장 신규 면허 등록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류와 하기면적, 종업원 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기는 이달 31일까지만이다.

납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으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신방동 청담설계사사무소, 사랑

나눔 실천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천안시 신방동(동장 조원환)은 10일 청담 설계사사무소(소장 신희성)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도금된 적십자회비는 국내·국제 긴급 재난구호 활동을 비롯해 희망품자 및 공의료 등 저소득층 구호, 사회봉사 등에 사용된다.

신희성 소장은 "지역사회에 소외계층을 돋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작은 정성이지만 보탰다"며 "소외된 이웃들의 삶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원환 동장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해 따뜻한 손길이 지역 곳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천안지회, 천안시복지재단에

후원금 200만원 전달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천안지회(지회장 김현식)는 10일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200만 원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이운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건설현장의 개별연명사업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17년부터 천안시복지재단에 꾸준히 기부를 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회장이 취임식을 기념해 모금됐다.

김현식 천안지회장은 "회원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운형 이사장은 "매년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고 계신 회원 한 분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된 후원금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상명대 백수황 교수, 미국 기계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우수논문 선정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는 공과대학 휴먼지능로봇공학과 백수황 교수와 한밭대학교 기계소재융합시스템공학과 김완진 교수와 공동 연구한 논문이 미국 기계학회(ASME) 주관 국제 학술대회인 2023 ISPS(Information Storage & Processing Systems)에서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상명대에 따르면 백수황 교수가 참여한 이번 논문은 '새로운 컨시퀀트 플 모터의 토크 특성 향상을 위한 회전자 극 설계 최적화'이다. 이번 연구를 반영해 최적 설계된 모터는 근거리 이동 모빌리티의 구동용 모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구적 치수 소형화와 모터 정격효율 향상으로 저속/고토크를 현실화했

다. 또 김숙기 없는 구조로 모터의 회생제동을 통해 전력을 회수해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시스템은 1회 충전에 의한 주행거리를 증가시켰다.

상명대 백수황 교수는 "이번 연구를 기초연구 및 시장화 단계에서 실용화와 사업화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며 "상명대 창업보육센터 입

주기업인 주비온드로봇의 대표로 2024년 1월부터 활동하면서 자동차 및 로봇용 모터기반 구동 시스템과 자율주행로봇 개발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명대 후면지능로봇공학과는 학과개설 이후 7년간 교외로봇 및 발명 경진대회에서 150회 이상 입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성환고등학교, 천안시 성환읍에 '찾아가는 카페' 수익금 기부

관광경영과 바리스타 동아리 '찾아가는 카페' 운영

천안시 성환읍(정원진 읍장)은 지난 9일 성환고등학교 관광경영과 바리스타 동아리가 '찾아가는 카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84만 원을 독거어르신을 위해 기부했다.

'찾아가는 카페'는 성환고 관광

경영과 바리스타·로스팅 동아리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료 및 드립백을 주문받고 판매하는 교육 활동이다.

정원진 읍장은 "이웃을 위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성환고등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훗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해 따뜻



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수탁기관 공개 모집

22~26일 접수…5년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천안시는 다함께돌봄센터 6·7·8호점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설치 예정인 불당리 더힐스아파트(6호점), 천안역 필하우스에듀시티1단지아파트(7호점), 직산도서관(8호점)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다.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해 천안시 아동보육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수탁자선정심의위

원회에서 전문성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될 경우 향후 5년간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민간위탁 방

법으로 운영되는 이동복지시설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맞벌이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일상돌봄, 학습

지도, 급식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아동

돌봄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에서 많이 지원해 주길 바라며, 안

정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선정해 양질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부성2동 천안상현교회, 어려운 이웃에 컵라면 50박스 후원



천안시 부성2동(동장 이계자)은 10일 천안상현교회 목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컵라면 50박스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천안상현교회는 천상나눔 봉사단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3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장바구니, 반찬봉사, 사랑의 떡국떡 나눔, 쌀나눔, 사랑나눔 컵라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탁된 컵라면은 부성2동 복지사각지대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진국 목사는 "부성2동의 주민들이 새해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

고 전했다.



당진소방서, 겨울철 화재예방 위한 공장시설

화재안전 현장지도점검 실시

당진소방서는 지난 9일, 관내 중점관리대상인 석문면 소재 사조동아원을 최장일 서장이 직접 방문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컨설팅 및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분진폭발의 우려가 있는 제분공장을 방문해 화재취약요인을 확인하고 장애물 등 인명피해 발생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인 공장시설 관계인과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 ▲시설 내 위험물 등 유지·관리 지도 ▲겨울철 소방시설 유지관리 사항 점검 ▲자위소방대의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도 등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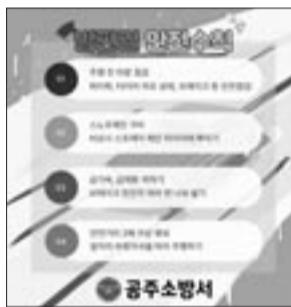
최장일 서장은 “분진이 발생하는 공장시설은 화재발생 시 큰 폭발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인의 화재 예방을 위한 훈련 및 소방시설 사용법 숙지 등의 노력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김정평기사회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이웃돕기 성금 1910만 원 전달 한국김정평기사회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지회장 박영무)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재숙)에 이웃돕기 성금 1910만 원을 전달했다.

공주소방서, 빙판길 안전사고 주의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지난 9일, 도내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설과 도로설길을 통으로 인한 빙판길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급격한 기온 하강 및 적설로 인해 도로가 결빙되면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져 안전사고 위험을 가중시킨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행 전 차량 점검 철저 ▲겨울철 스노우체인 등 유통용품 구비 ▲급기속, 급제동 피하기 ▲안전거리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류일희 서장은 “대설주의보에 따른 많은 양의 눈이 도로에 얼어붙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특히 빙판길 안전사고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특기활용 맞춤형 봉사활동 실시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0일부터 금산군·읍 소재 고령, 영세농가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세탁기, 에어컨 청소 전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을 활용, 노후된 세탁기, 에어컨 청소 등 소외계층의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가전제품 청소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은 전문 기능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재능 기부 기회를 부여하고, 점차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 주민의 생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준법지원센터에서 기획, 집행했다.

수혜자인 천모씨(남, 80세)는 “세탁기를 구입한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청소를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세탁기를 모두 분해해 구석구석 이렇게 깨끗이 청소해주니 기분이 좋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김웅중 사회봉사 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특기를 살펴 적재적소 맞춤형 사회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지난해 취업자 수 32만 7천명 증가

지난해 12월 취업자 28만 5천명↑… 고용률 ‘역대 최고치’ 기록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9만 5000명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32만 7000명에 달했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는 2809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세는 2021년 3월부터 3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34만 6000명에서 11월 27만 7000명으로 둔화했지만 지난달 다시 확대됐다.

신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1만명 늘어 12개월 만에 증가 전환 했다. 2022년 12월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8만 6000명)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기저효과와 최근 수출 증가세에 따른 경기 개선 조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 4000명), 정보통신업(8만 7000명), 건설업(7만 1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3만 5000명), 부동산업(-3만 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지난해 12월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8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3.3%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실업률이 오른 것은 2021년 3월 0.1%p 상승 이후 33개월 만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집계한 취업자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 7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늘었다가 코로나19가 확산

한 2020년 21만 8000명 감소한 뒤 2021년 36만 9000명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2년에는 81만 6000명 늘어 2000년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연계형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36만 6000명,

50대에서 5만 9000명, 30대에서 5만 4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8만 2000명, 40대는 5만 4000

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 3000명 줄었고, 도소매업에서도 3만 7000명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4만 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만 4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1년 전보다 0.5%p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7%p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간 실업자 수는 78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6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7%로 전년 대비 0.2%p 낮아졌다.

아산소방서, 대설 대비

긴급구조대응태세 강화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대설 예보에 대비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구조대응태세를 강화한다. 기상 특보 발효 시 소방공무원 비상근무 및 긴급구조통신 제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종점적으로 ▲겨울철 현장 활동 소방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선제적 출동대비 및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위험 지역 예방활동 강화 ▲지역별·도로별 특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확립 등이 추진된다.

권혁정 재난대응과장은 “지자체 등 긴급구조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랑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역 내 어려운 이웃 도움되고자

불우이웃돕기 대한 성금 전달

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일동은 9일 금산군청 군수실에서 불우이웃에 대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재성 등 4명의 임원들과 박민인 군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200만 원의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

모금회를 통해 금산군의 불우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추운 겨울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취약계층을 돋기 위해 금산소방서 임원들과 박민인 군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200만 원의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

금산=이정복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6·3생 아파트

하자발생 따른 긴급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는 6·3생활권(H2, H3) 주택 현장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 및 공사 지연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1월 10일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6·3생활권(H2, H3)아파트 입주 예정일(31일)에 앞서 지난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사전점검을 시행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인분이 발견되고 주요시설에서 미시공 상태 및 하자가 발견되는 등입주를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수사팀에서는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부표시 등 불량원재료 사용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소비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적발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행위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부적정 처리 등을 집중 점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제 현장을 점검하며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자녀 해밀동 입주 아파트 하자 갈등 및 해결방안 등과 관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동주택 사용 승인에 앞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정밀한 현장 점검과 다각적인 의견을 토대로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 예정자, 사업 시행자, 집행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인권자인 시(주택)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확인한 후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달라”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세종=김태선기자

예산군보건소,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주의 당부

철새도래지 방문 및 가금류·조류 사체 접촉 금지

예산군보건소는 최근 충남 지역 산간계 농장에서 고병 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암생 조류, 닭, 오리 등 조류에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로서, 사람에게 감염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암생 조류 및 분변, 오염된 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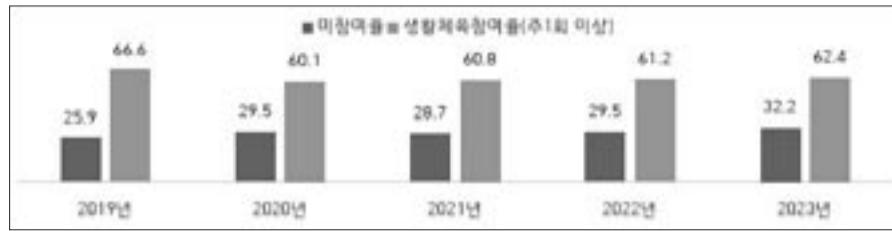
등을 접촉한 후 눈, 코, 입을 만졌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이뤄질 수 있다.

감복기는 통상 2~7일, 최장 10일이며, 주증상은 38°C 이상의 발열,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나타나며, 폐렴 등 중증 호흡기 질환, 소화기 증상 및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고 치료를 위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게 된다.

예산=박제화기자

'작년 생활체육 참여율 1.2% ↑' 62.4%

10대는 오히려 감소... 공공체육시설 가장 많이 이용, 체육시설 이용기준은 접근성 선호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주1회, 30분 이상) 구체적 체육활동은 62.4%로 전년도 61.2% 대비 1.2% 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팬데믹 이전인 2019년 66.6%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발생 기간(2020~22년)의 평균 참여율 60.7%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 이하 참여율은 66.2%로 2020~22년 3년 평균 대비 8.1%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대별 생활체육 참여율 조사 결과 60대는 전년 59.6%에서 8.4%포인트가 상승한 68.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10대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4.7%포인트 낮은 47.9%에 그쳤다. 또한, 소득수준이 1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16.7%포인트, 100~200만 원 집단이 12.6%포인트 증가해 저소득층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했다.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주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유지 및 체력증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3%로 가장 높았다. '체중 조절 및 체형 관리(45.5%)', '여가 선용(39.3%)' 등이 뒤를 따랐다.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1위 '공공체육시설(28.3%)', 2위 '민간체육시설(23.4%)', 3위 기타 체육시설(9.9%, 아파트단지 체육시설 등) 순으로 조사됐다. 그중 등산 참여율은 전년 대비 10~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3.0%포인트(p) 이상 증가했고, 보디빌딩은 30대에서 전년 대비 참여율이 가장 큰 폭(9.2%p)으로 증가했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간이운동장(53.0%)', '체력단련장(23.2%)', '수영장(8.5%)' 순으로, '민간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력단련장(42.1%)', '수영장

(12.6%)', '골프연습장(11.4%)' 순으로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로는 '거리상 가까워서(38.3%)', '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30.9%)' 순이었으며, 반대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54.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규 학교체육 외 생활체육 강좌 또는 강습을 받아 본 종목은 '수영(23.8%)', '보디빌딩(16.3%)', '골프(14.5%)' 순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번 결과에서 확인된 생활체육 비중에 인구(32.2%)에 대한 참여율을

유도하기 위해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제도(1인당 최대 5만원 지급)' 시행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국민체육센터 확충 등 생활체육 기반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거론하면서 "전 연령대 중 생활체육 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10대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과 우수 체육지도자·시설·프로그램을 보유한 지정스포츠클럽의 연계를 강화한다"며 "또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 '종목단체와 프로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방과 후 스포츠 교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부여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

영양·건강올리고, 인스턴트 내리고 프로그램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희)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월·2월 중 매주 1주 회 '겨울방학 중 영양교사, 조리사와 함께하는 영양·건강 올리고 인스턴트 내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방학 기간 중 지원되지 않은 음식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요리를 해 보면서 음식에 대한

부여=김성구기자



예산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 취약계층 학생의 건강한 방학 생활 위해

'겨울방학에 머하니?' 프로그램 운영

예산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아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건강한 방학 생활을 위해 9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초·중 53명 대상으로 "겨울 방학에 머하니?" 프로그램을 운영된다.

"특별한 소통"에서는 출범 이후 세종으로 이주한 교육공동체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특별한 연결"에서는 세종시의 각종 교육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다뤘다.

세종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육공동체

가 세종교육을 더욱 친근하고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세종답게' 흥보 책자를 관계기관에 배부하고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에도 탑재할 예정이다.

세종=김태선기자

기 어려운 외각 지역 학생들을 위해 관내 기관의 장소를 협조 받아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장소와 내용은 ▲ 예산소재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달콤한 베이킹 교실) ▲ 예산면 소재 새감마을(프라모델 과학교실) ▲ 고덕면 소재 예산군 청소년 미래 센터(나만의 향기 만들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산=박제화기자



서천고 총동문회 후배들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기탁 서천고등학교(교장 이병준)는 총동문회(회장 구태완, 22회)에서 모교 발전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올해도 열정과 도전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20명의 서용인에게 5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2024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원장 고덕희)은 1월 10일(월) 오후 2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ES생각마루'에서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하여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대전특수교육원 등 5개 직속기관이 참여하여 2024년 대전 교육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장의 경영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고한 추진 동력을 확보를 통해 대전교육의 발전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와 과학교육을, 대전교육연수원은 비전-변화와 성장으로 함께 여는 미래교육을, 대전교육정보원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정보 인재 양성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유아행복교육 실현을, 대전특수교육원은 행복한 동행,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 운영에 대해 보고하였다.

한편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2023년 제69회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교원부) 1팀, 제54회 전국교육자료전 국무총리상 1팀 등 2년 연속 참가팀(4팀) 전원 1등급인 푸른기장 입상, 청소년과학페어 전국 2년 연속 대상, 제31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피 전국 1위 최우수상,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최우수상 등 전국최고의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고덕희 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직속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전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협의와 지원을 통해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교육청 '특별하게 세종답게' 발간

세종교육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종합 흥보 책자



세종시교육청은 2012년 출범 이후 양적인 성장을 물론 미래교육을 향한 담대한 도전을 지속하며 꾸준히 활동을 이루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일구어온 세종만의 특별한 교육 내용을 담아 다른 지역의 이주예정자들에게 오고 싶은 도시, 함께 하고 싶은 도시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번 책자를 발간했다.

흥보 책자는 세종교육의 비전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특별한

기틀', '특별한 미래', '특별한 소통', '특별한 연결'로 구성되었다.

'특별한 기틀'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세종교육 인프리를 소개하고, '특별한 미래'에서는 유아교육부터 중등교육은 물론 특수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세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담았다.

'특별한 소통'에서는 출범 이후 세종으로 이주한 교육공동체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특별한 연결'에서는 세종시의 각종 교육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다뤘다.

세종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육공동체가 세종교육을 더욱 친근하고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세종답게' 흥보 책자를 관계기관에 배부하고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에도 탑재할 예정이다.

세종=김태선기자



는 보호자님들에게 민족도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당진교육지원청 초등 돌봄 센터, 겨울방학 중 돌봄 교실 운영

미술, 그림책 놀이, 생태수업, 킹콩 블록, 전래놀이 등 다양한 체험 교육

당진교육지원청 초등 돌봄 센터는 지난 9일부터 겨울방학 중 돌봄 광장을 해소를 위해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탑동초등학교와 대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 돌봄 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겨울방학 중 돌봄 교실 수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범위를 확대해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희숙 교육장은 "겨울방학 중 학교 공사와 학생 고플 등으로 돌봄 교실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범위를 확대해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겨울방학 동안

는 보호자님들에게 민족도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마곡초, 2024 충남 도내 농촌유학 시범사업 유학 학교 선정



선정되었다.

'충남 도내 농촌유학 시범사업'은 충남 도내 과대, 과밀학교 재학생이 일정 기간(최소 6개월 ~ 1년) 충남의 농촌 소규모학교인 작은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미술-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 계절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전인적인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 1년간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유학 형태는 가족체류형 단일유형으로 실시되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월 체

재비 지원과 학교는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는 주택 제공과 마을공동체 연계프로그램 제공 및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한다.

김종환 교장은 "학생들이 농촌유학을 통해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미래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농촌 유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민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시 청소년재단,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모집

재단법인 아산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은 「아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호와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2월 8일까지 제8대 아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다.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모의 지방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들로 ▲본 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한 정책 제안 활동 ▲아동 권리 캠페인 ▲특별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에게는 ▲위촉장 수여 ▲

봉사 시간 부여 ▲시의회 견학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아산시 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 사전 신청 후 2024년 2월 8일까지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회 모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농축산 탄소중립 선도 “농가소득 2억 실현”

道, 농축산분야 탄소중립 전략수립… 2045년까지 12조 3000억 투입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인 충남도가 농축산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장선다.

2045년까지 12조 2855억 원을 투입해 저탄소 농업 생산 기반 등을 구축, 온실 가스 배출량을 70% 줄이고, 농가 소득은 기구 당 2억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도는 ‘2045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후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에 발맞춰 마련한 이번 전략은 ▲スマ트팜 ▲농민 참여 ▲제도 지원 등을 통한 탄소중립 농업경제 선도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정책 목표는 ▲2018년(387만 톤) 대비 2045년 온실가스 271만 톤(70%) 감축 ▲2045년 농가 당 소득 2억 원 ▲농업의 저탄소·친환경 산업화 등으로 잡았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탄소중립 농업경제 전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저탄소 농업 실행 역량 기반 구축 등이며, 총 투입 예산은 12조 2855억 원이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도는 우선 사

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스마트 농업 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팜 선진국인 네덜란드 사례로 볼 때, 3㏊ 규모 스마트팜은 비료 26%와 물 18%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가스와 고체연료, 바이오차(biochar·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스마트 축산 단지도 조성 추진한다.

저메탄사료 상용화 및 생산·공급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도 늘린다.

폐탄은 이산화탄소보다 30배 많은 온실 효과를 부르는 가스로, 기축의 장내 발효 등으로 발생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노후 농기계는 고효율로 전환하거나 전기에너지 농기계로 바꿔 탄소 배출을 저감한다.

저탄소 친환경 농업도 확산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인다.

친환경 농업은 관행농업보다 온실가스를 25%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설원에 등의 경우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열회수형 환기 장치 등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시설·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토양·지열·공기열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

영농법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한다.

논물을 얇게 맙 경우 상시 담수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63% 줄고, 중간 물폐기 를 하면 25.2%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 논물 자주 빼기와 논물 얇게 대기 등의 영농기술을 확대 보급한다.

농식품 유통거리 단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로컴퓨트 활성화 및 온라인 유통 확산, 생산지 중심 유통·소비체계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탄소중립 농업 분야 민관 협력 추진 체계 구축 ▲탄소중립 농업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체법규 제정 ▲저탄소 농축산물 인센티브 확대 등도 중점 추진한다.

연도별 투자 사업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8054억 원 ▲2026년~2030년 2조 2656억 원 ▲2031~2035년 2조 6303억 원 ▲2036~2040년 3조 4939억 원 ▲2041~2045년 3조 5349억 원 등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내 경지 면적은 21만 1518㏊로 전국 149만 7025㏊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가축 수는 한우 46만 7459마리, 젖소 6만 7027마리, 돼지 227만 3307마리, 닭 286만 2496마리 등이다.

오전기도 농림축산국장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는 농축산 분야 역시 마찬가지”라며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농축산 경제를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특히 “우리나라 국토의 40%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경우 농가 소득이 1억 원으로 도내 농가 소득의 2배가 넘고 있으며, 스마트팜 도입 시 농업 소득은 평균 32%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그러면서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의 첨단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우리 도의 어건에 맞게 농업 기술과 환경을 최적화한다면, 2045년 농가 소득 2억 원 달성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농축산 미래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당진지역 축산인들 이웃 돋기 성금 기탁

당진시에 성금·돼지고기 총 2,500만 원 상당 전달

속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 더욱 의미가 있다.

축산 관련 조합과 양돈 법인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희망하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온정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지역 축산 관련 유관 조합과 양돈 법인은 지난 9월, 당진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돋기 위해 성금 2,0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탁했다.

이번 이웃 돋기 성금은 ▲당진축산업 협동조합(조합장 김길만) 1,000만 원,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경용) 1,000만 원, ▲도뜰 한돈영농조합법인(대표 유재덕) 돼지고기 5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최근 곡물가 인상에 따른 사료 가격 상승,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축산 악취 민원, 돈가 하락 등 어려운 여건

당진=최근수기자



대전대학교 공연예술콘텐츠학과
콘텐츠기업육성센터 현장학습

아산시 올해 무장애 도시조성·장애인복지 향상에 ‘총력’

아산시는 2024년 역대 최대 장애인복지 시설 건립, 장애인 돌봄, 생활 안정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나선다.

전년 대비 18% 증가한 581억 원을 들여 ▲장애인복지관 신축 ▲장애인 전용 운전힐링센터 건립 ▲뇌병변 주간보호시설 시범운영 ▲최종증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장애인 연금 등 생활 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운전힐링센터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이어 지방재정 투자심사, 도시 관리 계획(주차장) 결정(변경) 등 진행 예정으로 건립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전무했던 뇌병변 주간보호시설을 올해 시범 운영하여 뇌병변 장애인의 돌봄·교육·건강관리 등을 지원하여 뇌병변장애인은 물론, 가족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예정이며 노후된 장애인복지관의 신규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 등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기능 및 발달 장애인의 돌봄 확대를 위하여 2024년도부터 ‘장애인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신규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며,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장애수당은 월 6만 원,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정도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월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며 장애인연금은 기관에 헌금을 지원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아산=리량주기자



3주간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날’ 집중 운영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본부장 채창열)는 8월~26일 3주간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

공단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이번 점검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동절기 한파 등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저하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재해예방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둔다.

동절기에는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위험에 노출되는 빙동이 높아지게 되는데, 특히 육외작업자의 경우 운동제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점검반은 동절기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고자 ▲단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데가 설치 여부 ▲안전대·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중점 점검 ▲흙마이 지보공·거푸집 동바리 변위 여부 확인 ▲인화성 물질 사용에 따른

송병배기자

2024년 청양군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발표

농업인 행복한 전국 최고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1번지 조성 박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9일,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행복지수 1위 청양’ 비전 실현을 위한 ‘2024년 청양군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을 발표했다.

청양군은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먹거리 산업 육성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체계를 공고히 하자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5대 분야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청양군은 연도 내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5대 분야 전략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3H(건강(Health), 행복(Happy), 화합(Harmony)) 실현을 위한 청양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돈곤 청양군수 “그간 청양형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사업의 정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0여년 전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사업을 배우는 지자체에서 현재는 가르치는 지자체로 펼쳐나왔다”라고 전했다.

가 및 550㏊ 품목 달성, 먹거리종합타운(대체 탄정리) 중심 먹거리 기반 시설 활성화, 대도시(대전·세종) 공공급식 등 연계 시장 개척, 출하 전 안전성 검사 100% 달성, 먹거리 리더 양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청양군은 연도 내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5대 분야 전략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3H(건강(Health), 행복(Happy), 화합(Harmony)) 실현을 위한 청양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돈곤 청양군수 “그간 청양형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사업의 정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0여년 전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사업을 배우는 지자체에서 현재는 가르치는 지자체로 펼쳐나왔다”라고 전했다.

김정환=정상병기자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5년 연속 선정… 기관 2곳중 1곳

조폐공사, 지역 사회공헌 인정 제 심사 이후 매년 선정 폐기 달성

도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역 사회공헌 인정 제도 실시 이후 조폐공사는 매년 선정되어 대전지역 사회공헌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대전 지역 대표 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사회 및 출판·봉사와 기부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역 사회공헌 인정 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ESG 부문에서 꾸준한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는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 사회가 인정해주는 제

으로는 ▲명절맞이 이웃 사랑 운동 ▲공공기관 사회공헌 플랫폼 활동 ▲대전지역 보훈 가족 초청 행사 ▲취약계층(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봉사 및 교육기부 활동이 있다.

성장훈 사장은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선도 기관으로서 올해 더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관 2곳 중 1곳

다양한 농축수산물 부터 설 선물 세트까지 최대 3만 원 할인

충청남도 청양군(군수 김진우)은 온라인 쇼핑몰 ‘e홍성장터’(www.ehongseongjeon.com)에서 전품목 대상 30%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 29일간 진행되며 1인당 최대 할인한도는 3만 원이다. 또한 행사 기간 내 신규 회원가입 시 증정하는 5천 원 할인쿠폰과 충복제용이 가능해 최대 3만 5천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구매 후기 작성자 중 베스트 후기 작성자 5명을 선정하여 3만 원 적립금 지급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 및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오니 e홍성장터에 많은 관심과 애용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홍성장터에는 충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한우, 가공식품, 밀키트 등 여러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

김정환기자

며, 다양한 소비자 확보와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충청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동정

업무 협약식



박경귀 아산시장
=11일 오전 9시
둔포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열리는
'2024 새해농업
인실용교육' 시장
님 특강(벼, 둔포), 오전 10시 30분
에 한울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온양
한울고등학교 졸업식', 오후 2시 시
장실에서 열리는 '후원물품(금) 전
달식', 오후 2시 15분 시장실에서 열
리는 '우유배달 사업(후원) 업무 협
약식'에 참석.

위촉식



오성환 당진시장
=11일 오전 10시,
7층 접견실에서
'희망 2024 나눔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에 참석,
오후 2시, 2층 종회의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회
의'에 참석.

군민과의 대화



가세로 태안군수
=11일 오후 1시
30분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
는 '군민과의 대
화'에 참석.

연시총회



김돈곤 청양군수
=11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에
서 열리는 2024년
칠갑산 사과연구
회 연시총회에
참석.

아산시 공공예금 이자수입

'역대 최고액' 달성

아산시(시장 박경귀)의 지난 2023년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역대 최
고액인 84억 5,000만 원을 기록했다.

시의 2023년 이자수입 세부내역을 보
면 ▲정기예금 이자 74억 원 ▲통합계
좌 이자 3.8억 원 ▲수시입출금계좌
(MMDA) 이자 6.7억 원 등 총 84억 5,000
만원이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익 규
모이자, 전년(2022년) 33억 원 대비
256% 초과 달성을 성과다.

최근 5년간 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18년 12억 원 ▲2019년 23억 원 ▲
2020년 33억 원 ▲2021년 9억 원 ▲
2022년 33억 원이다. 시는 고액 지출의
경우 부서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대기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일
별 입출금 현황에 따른 계좌 잔액을 실
시간 모니터링해 보통예금의 유휴자금
거치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높은 이자
수익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시입출금계좌(MMDA)는 1억
원 이상을 7일 이상 예치할 때 보통예
금보다 평균 2.2%의 높은 금리를 주는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시는 금고·약정
이래 처음으로 MMDA 계좌를 발급·
개설해 이자수익 증대를 꾀할 수 있었
다.

시 관계자는 "2023년 높은 이자수입
수익을 낸 만큼 2024년에도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통한 정기예금의 분산 예
치와 MMDA 계좌를 활용한 자금 운용을
통해 세출예산의 안정적인 집행과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4년에도 월별, 분기별
자금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이자수입
최대화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산=리량주기자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 2년 연속 선정

우/리/동/네

태안군, 근흥면 정산포항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 투입

태안군 2년 연속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군은 지난 9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결과 근흥면 정산포항이 최종 선정됐으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35억 원 포함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은 국내 300개 어촌의 경제·교육·문화·의료·일자리 등 경제·생활 플랫폼과 안전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어촌 및 살고 싶은 어촌을 구현하고자 추진된다.

지난해 1월 ▲소원 생활권 ▲고남 생활권(이상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연포항(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소 선정으로 국비 175



억 원을 확보한 태안군은 2년 연속 해당 공모 선정으로 어촌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근흥면 정산포항은 매년 지속적인 귀여운 어민들이 유입되고 어촌계를 비롯한 주민들의 정주 의지 및 환경개선 의지가 높은 지역이나, 취약한 어항시설로 매년 침수와 월파

및 낙상사고가 이어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온 곳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정산포항에 ▲방파제 정비 ▲어장진입로 정비 ▲침수방지 시설 정비 ▲안전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 안전성 확보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어촌계회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술리더 교육과 시설물 운영관리 컨설팅에 나서는 등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어촌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군민 삶의 질 확충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해 3개소에 이어 2년 연속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돼 기쁘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역 중장기 발전을 이끌어갈 이번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종합운동장 동계 비닐 터널 시범 운영

당진시, 혹한기 걱정 없이 17만 시민의 체육인프라 조성

당진시는 겨울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당진종합운동장 육상 트랙 내 동계 비닐 터널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동계 비닐 터널은 시 체육회 산하 육상연맹 소속의 육상꿈나무 선수들의 안전한 훈련을 위한 육상연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당진시는 당진종합운동장 내 육상 트랙 6면을 비닐 터널화해 육상

선수의 혹한기 훈련 중 부상을 방지하고 육상 동호회원 및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동계 비닐 터널을 운영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당진종합운동장 내 동계 비닐 터널 시범 운영을 올해 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체육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열려



아산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 8기의 후반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박경귀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보고회는 전 부서의 신년 업무를 공유하고 주요 전략 사업의 방향성

과 연간 세부 추진계획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고회에는 전 부서는 물론 시설 관리공단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과 함께 참여해 벽· 없는 협업 행정을 유도했다. 또 정책특별보좌관과 참여자치위원회 분과별 임원의

83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서

추진율은 50.7%를 보이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올해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보여주는 중장기 대안 시기이다.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지난해 이룬 성과들에 이어 공약사업의 결실을 거둬야 할 때"라며 "시민들과의 약속들을 얼마나 지켰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지리인 만큼, 실무부서는 참여자치위원회들과 특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미비점을 보완해 공약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는 10일까지 이를 통해 진행된다. 첫날에는 ▲기획경제국·홍보담당관 ▲행정안전체육국·시민소통담당관 ▲환경녹지국·도시개발국·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의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2024년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 신청·접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49개 사업 97억 지원



득분야 보조사업을 신청받는다.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은 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자단체와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생산장비, 작업로 등)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재배시설, 표고 배지·원목 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생산단지 내 묘목비, 식재비 등)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명품임산물 육성지원(밭 수확망, 농자재 등) ▲친환경 임산물 육성(풀베기 등) ▲임산물 소득증대(약제비, 묘목대, 하우스 등)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포장재, 저장기장)

유동 장비) 등 8개 분야 49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9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신청 기간은 2월 8일까지 이고 자세한 지원조건·자격·방법 등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에 배부된 지원사업 안내 책자에서 확인하면 되며, 군은 접수 마감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현지 심사와 보조금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뒤 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양은 산림의 비율이 높은 만큼 임업인이 필요한 산림 분야 지원을 통해 임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지속 가능한 임업인의 삶의 질과 소득 증가를 위한 다양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제8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위촉

당진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쌍방향 소통 가교역할 기대

당진시는 지난 9일, 중회의실에서 제8기 당진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30명을 위촉했다.

제8기 당진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는 당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14명과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6명으로 구성했으며, 서포터즈는 인플루언서, 블로거, 디자이너, 광고홍보 전문가, 영상전공 대학생, 시인, 주부, 농업인, 사진작가, 캠리그래퍼 등 직업군이 다양하다.

서포터즈들의 임기는 1년으로, 임기 동안 당진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의 생생한 현장을 취재하고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당진을 알릴 예정이다.

당진시의 문화·관광·시정 정책 등의 콘텐츠를 시민의 관심에서 제작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와 시민 간 쌍방향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당진시 공식 블로그의 경우 서포터즈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2024년 1월 8일 기준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는 15,224,678명이며,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서포터즈들은 755건의 현장 취재를 하고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올려 시민 및 관광객 등과 공유해 왔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어르신 경료효친 사업' 추진

올해부터 90세 생일 맞은 노인 건강보조물품 지원

태안군이 올해부터 90세 생일을 맞은 노인에 건강보조물품을 지원하는 '우리마을 참 어르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태안군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90세 생일자 올해의 경우 1934년 출생자에 3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물품을 지원키로 하고 이달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하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안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노년층의 노고에 감사표하고 이들의 건강한 노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 및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 추진된다.

올해 예상 지급대상자는 총 259명으로, 군은 대상자의 생일달 1개월 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매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후 매월 맘일 읍·면을 통해 대상자에게 물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물품은 온열침질기, 암마기, 발마사지기, 족욕기, 온수매트, 이불 세트 등 30만 원 상당의 제품 중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다(1인·1회·1품목). 신청 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태안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8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에 매달 1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이번 '우리마을 참 어르신 지원 사업'까지 진행하며 적극적·실질적 노인복지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에 대상자 전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지역 노년층이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경료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해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 이어 이번 우리마을 참 어르신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지역 발전에 힘써온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은 태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마음과 마음을 이어 청양사랑기부제 꽃을 피우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고양사랑 기부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이 청양사랑기부제의 통일성 있고 차별화된 홍보를 위해 브랜드 이미지(BI)를 제작했다. 콘셉트는 우리(I+you=we)의 w와 e를 '하트모양(마음)'과 매듭(이어짐)으로 형상화 했고, 세 개의 꽃잎은 군 심벌마크의 깨끗한 물(청색), 맑은 공기(녹색), 청양의 미래(적색)를 표현했다. 군은 브랜드 이미지(BI)를 청양사랑기부제 디자인 포장 상자 및 각종

우리/동/네

“결혼 축하금을 드립니다”

논산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700만원 지원



논산시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돋기 위해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2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며, 총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1월 현재까지 288,000,000원으로 96쌍의 부부의 시작을 응원하였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하면 되며, 지원 조건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 다음 달에 일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청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정책팀(041-746-5764)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는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결혼 장려 뿐 아니라 충남 남부권 유일의 공공간호조리원 건립 추진('25년 완공, '아이키우기 좋은 안전망 조성')을 통한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24시간 응급진료서비스 체계구축, 소아응급진료 최신식 의료장비 정비 구축 등 새로 탄생하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유아 교통안전물품 신청하세요

서천군, 올해 출생한 모든 신생아 대상

서천군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영유아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올해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한다.

이번 안전용품 지원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업해 저출산 시대 출산과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도로교통법상 영유아 유아보 호용 장구 장착 의무화를 준수하고자 마련됐다.

군이 지원하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은 0~12세용 카시트로, 이를 희망하지 않으면 차량용 공기청정기, 차량용 소화기, 구급함 키트, 빛 반사 엘로카드 등이 포함된 휴대용 안전용품 세트로 선택할 수 있다.

서천군에 주소를 둔 2024년 출생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아의 부모가 신생아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명원 군 안전관리과장은 “영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 사항인 만큼 이번 카시트 지원이 저출산 극복과 어린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해 영유아 카시트와 차량용 안전세트를 포함해 총 97개의 교통안전용품을 제공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고지

계룡시, 매년 1월 1일 기준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5123건,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단, 면허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년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시청 민원실 또는 각 면·동주민센터에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아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착오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세정팀(042-840-2751~4)에 문의하면 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군민 보호 주력

부여군, 복덕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2028년까지 183억원 투입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9일 외 산면 화성리 화성교 앞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

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외산면 복덕천 일원은 집중호우시 수위상승에 따른 내수 배제 불량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상가·농경지·주택 등 침수로 경제적인 피해와 주민 불편이 가중되었던 것이다.

향후 2028년까지 5년간 183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문 6개소와 배수통관 12개소, 복덕천과 미동소하천의 교량 7개소도 신설 또는 재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하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외산면의 상습적인 침수구역을 해소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김성구기자

동정

동행콘서트



박정현 부여군수= 11일 오전 10시 세도면 방울토마토

공선출하회 선별장

현장방문 및 세도

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동행콘서트에 참석, 오후 3시 장암면 친환경에너지타운·폐기물 자원회수시설 현장방문 및 장암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동행콘서트에 참석.

군민과의 대화



김기웅 서천군수= 11일 오전 9시 접무실에서 열리는 목요현안회의에 참석,

오전 10시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교육

관에서 열리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농촌여성)에 참석, 오후 10시 30분 시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군정 군민과의 대화에 참석, 오후 2시 30분 마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열린 군정 군민과의 대화에 참석.

계룡시 2024년도 농어민수당 선불카드로 지급 나서

선불카드로 수당 지급… 사용처 확대·사용편의 증진 기대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24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 대신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농업인 가구당 80만 원을 지급하되, 가구 내 농업인이 2명

농자재 구입 등 농업인들의 사용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계룡시는 상품권 대신 선불카드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NH농협은행 계룡시지부와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 대상자가 확정되는 오는 6월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 까지 계속해서 계

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으로 충남도 및 충남도와 인접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을 선불카드로 지급함에 따라 사용처 확대를 비롯해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당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변화, 생산단가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김성구기자

부여군 천사(1004) 나눔 실천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으로 이웃사랑 실천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해 3월부터 관내 마트(6개소)에서 부여군 법인카드 사용 시 “부여군 천사 1004”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을 연말 이웃돕기에 활용하는 신규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여군 천사 1004”로 지난해 적립된 포인트는 백만원으로 이를 활용하여 12월 28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물품(리면)을 전달했다.

“부여군 천사(1004)”는 부여읍 하모니마트, 자연애마트, DC킹마트, 규암면 복마트, 석성면 코리스마트, 농·축·낙농 하나로마트 6개 업체에 적립할 수 있으며, 매년

부여군청 관계자는 “올해는 더 많은 포인트 적립을 위해 부여군 법인 카드 사용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주민들도 나눔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부여군 천사(1004)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군 천사(1004)”는 부여읍 하모니마트, 자연애마트, DC킹마트, 규암면 복마트, 석성면 코리스마트, 농·축·낙농 하나로마트 6개 업체에 적립할 수 있으며, 매년

적립된 포인트는 연말 이웃돕기 후원을 위한 물품 구매에 사용될 예

정이다.

부여=김성구기자

부여군 천사(1004) 나눔 실천

(주)부강이엔지 전形권 대표 올해도 이어진 고향사랑



서천군 소재 주부강이엔지 전형권 대표가 지난 9일 화양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화양면에 기탁했다.

화양면체육회장이기도 한 전형권 대표는 매년 소외이웃을 위한 후원금 기탁, 저소득층 집수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지역사회를 실천하고 있는 지역사랑 일등 공신이다.

전 대표는 “내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작은 정성을 표현했을 뿐”이라며, “소외이웃 없이

살기 좋은 화양면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부강이엔지는 서천군내 종전농공단지에 있는 전기 전문업체다.

동행콘서트 시작 전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건설·환경·상수도 등 각 분야별로 담당 부서장과 팀장이 직접 의견을 접수하고 답변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는 주민들의 큰 관심 속에 ▲농경지 수해 복구대책, ▲옹천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추진 현황, ▲도 보호수 지정에 대한 제도개선 ▲만수산 등으로 개방, ▲지티리 상수도 설치, ▲구룡천취입로 신규 설치, ▲시내버스·마을순회버스 운행 노선 개편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군수와 부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박 군수는 “현장에서 들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부

여 무량사 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 기탁

부여군 외산면 소재 무량사(주지스님 정덕)는 연말연시를 맞아 부여군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5백만원을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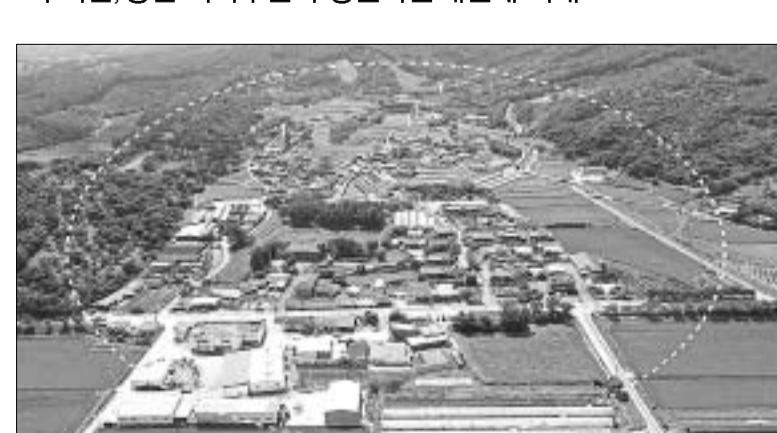
이날 정덕 주지스님은 “무량사 스님들과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고자 정성을 모았으며, 추운 겨울 외롭고 힘든 이웃이 겨울을 잘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정현 군수는 “전해주신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분들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밝혔다.

이날 기부된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여군 관내의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내산면 운치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연내 준공 노력

부여군, 농촌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대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내산면 운치3리 현장을 연내 준공한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국비 70%의 사업이다.

부여군은 88가구가 주지하는 운치3리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0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

부여=김성구기자

정

계룡회 회의



최원철 공주시장= 11일 오전 11시 시청 집현실에서 열리는 계룡회 회의에 참석.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김동일 보령시장 = 11일 오전 10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장소: 청소면 행정복지센터) 참석.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완섭 서산시장= 11일 오전 10시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참석.

업무계획보고회 주재



박병인 금산군수= 11일 오전 8시 10분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업무계획보고회 주재.

2024 스마트원예분야 보령시 187억 원 확보

보령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형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양한 시험사업을 추진한다. 농업 원예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총사업비 187억 원을 확보해 2024년 스마트농업 육성에 본격 박차를 기울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100억 원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30억 원 ▲청년농 및 가족농 스마트팜 보급 30억 원 ▲공기열 냉난방시설 지원 19억 원 ▲시설현대화 및 생육환경개선 분야 등 12억 원이다.

지난해 공모 선정된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도비 66억원, 시비 34억원)을 투입해 청년에게 맞는 맞춤형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청년농 및 가족농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령시는 2024년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청년농 및 가족농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년농 및 가족농 스마트팜은 청년농 및 가족농에게 맞는 맞춤형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령시는 2024년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청년농 및 가족농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령시는 2024년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청년농 및 가족농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령시는 2024년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청년농 및 가족농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령시는 2024년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청년농 및 가족농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정환 기자

서산시, 원스톱민원상담관 운영

신속·정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기대

충남 서산시가 시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위해 '원스톱민원상담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원스톱민원상담관은 각종 민원처리 부서, 민원서식 작성 요령과 부인민원발급기 및 민원편의

“10대 군정운영과제 집중 추진”

박범인 군수, 매력금산 만들기 등 10대 군정운영과제 밝혀



박범인 군수는 10일 금산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새해 설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는 과감한 도전, 거기는 행복!"을 목표로 찾아오는 매력도시, 중흥하는 경제도시, 건강힐링 행복 도시, 세계속의 인접수도, 신뢰받는 희망군정 등 5대 군정전략을 수립했다.

민선 8기 금산군정은 '생명의 고

향금산, 세계로 미래로' 비전 실현을 위해 '과감한 도전, 거기는 행복!'을 목표로 찾아오는 매력도시, 중흥하는 경제도시, 건강힐링 행복 도시, 세계속의 인접수도, 신뢰받는 희망군정 등 5대 군정전략을 수립했다.

박군수는 이 자리에서 지역특색

을 활용한 건강힐링 관광인프라 구

축, 지역적 이점을 활용한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진흥,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등 10대 군정운영과제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매력금산 만들기에 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인구 방어에 적극 대응하고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군민 생활권 향상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아이조아센터 조성, 아토피자연치 유마을 확대, 치유형 위케이션 농촌유학 거점 조성 등 290억 원 규모 8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산의 산과 강을 활용해 관광지구를 창출하고 축제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하며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경기 불황 속 소상공인 체질개선, 경영권 보호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로와 도시 재생 생활 SOC를 확충하고 안전한 금산을 만들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 및 사회

적 야자 보호 및 군민 생애건강을 위한 공공 보건서비스 확대, 교육으로 머무르는 군민 구현, 금산인 산 세계화 조성 및 세계진출 추진 등을 이야기했다.

농업 및 문화, 행정에 관해서는 미래형 첨단농법과 스마트팜을 강화하고 도시민 귀농귀촌과 청년농 육성을 통한 농촌 정착 유도, 군민 문화행복 지원,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구현에 대해 언급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방우리 양수발 전소 유치 성공 소식을 비롯해 금

산인구 2023년 1월 5만629명에서

12월 5만939명으로 증가, 세계인 산

수도 선포와 금산인 산 세계화, 제

41회 금산세계인 삼죽제=‧

제75회 충남도체육대회 성공개최,

관내 학생 명문대 등 진학, 예산

7711억 원 편성 등에 대해서도 설

명했다.

이정복 기자

보령시, '시민공감' 2024년 달라지는 시책 홍보나서

5개 분야 23개 사업 제도 및 정책 발표

보령시는 2024년 간접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시민공감'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될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6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발표된 '2024년 달라지는 시책'은 기초생계급여 기준 변경, 기본형 공의직불금 인상, 행보백시 활성화 등 보령시를 비롯한 중앙정부 정책의 변경 사항도 담아냈다.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지·보건·환경 분야 기초 생계급여 선정 기준 변경 등(13개 사업)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에서 32%이하로 확대되며, 첫만이용권이 기존 자녀 출산시 200만원 지원(일괄)에서, 둘째 이상 300만원 지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취전명예수당 지원 인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및 아동양육비 선정기준 확대 ▲부모급여 지원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 확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기 인상 ▲보호종료아동 지원금 인상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확대 등 대부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분야 제도가 변경된다.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109번으로 통합·개편되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견진 항목 추가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운영 ▲코로나 19 PCR 무료검사 변경 등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된다.

■ 건설·교통·기타: 행복택시 활성화 등(5개 사업)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미을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거점과 승강장 이동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기존 천북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했던 행복택시를 청소년으로 확대되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확보하는 청소년 택시로 확장된다.

기본형 공의직불금 제도에 있어

서 소농직불금 단기 가농기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고, 탄소증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선택형 공의기능 증진 직불금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 농·수·축산·산림 분야: 기본형 공의직불금 단기 인상 등(3개 사업)

고령은퇴 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퇴농업인(만65~79세 이하)을 대상으로 1㏊당 매도 500만원, 임대 3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기본형 공의직불금 제도에 있어서 소농직불금 단기 가농기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고, 탄소증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선택형 공의기능 증진 직불금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의직불금 제도에 있어

서 소농직불금 단기 가농기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고, 탄소증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선택형 공의기능 증진 직불금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변경(1개 사업)

기존 문화재(財)는 재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확장된 문화재 정책 범위를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產)으로 체계화가 전환된다.

'문화재보호법'에서의 개념인 '문화재'의 용어가 '국가유산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국가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하위 개념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부동유산으로 불리게 되며, 이는 유네스코 국제 기준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정복 기자

대풍(주) 오홍권 대표, 1억원 기부 및 충남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간 기부하면 기부가 가능하며, 충남 지역에는 총 127명이 아너 소사

이어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송병배 기자



지난 9일, 시장실에서 열린 간담회 사진(왼쪽부터 이지현 상담관, 이원섭 서산시장, 김경미 상담관)

우/리/동/네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서산시 2년 연속 공모 선정



충남 서산시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서 팔봉면 호리항·개복항·권역(유형2) 1개 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마을에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기반 및 경제구조 마련, 어촌자원을 활용한 수의시스템 구축, 주민을 위한 도시형 어촌생활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7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21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팔봉면 호리항 일원에는 어촌 생활 향상을 위한 도시형 생활 서비스 가로림 행복스테이션과 어촌인구 유입을 위한 귀어인 체류 공간 365 쉼터우스를 조성하고, 호2리 일원에는 외부 방문객 등을 위한 바닷가 기반 여가 공간인 가로림 활력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호리항과 개복항에 어항시설 정비를 기반으로 인접과 협력 개선이 추진된다.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어항 5개소에 어촌·어항 중심의 시설 현대화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 2023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개소를 추진해 어촌의 뛰어난 변화를 이뤄냈으며 지역 특성화 진행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2년 연속 선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획득한 한층 고도화된 사업 운영 역량으로 대상지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2년 연속 선정이 서산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라며 "이번 사업 통해 전국 최고의 어촌산업 경쟁력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2024 긴급복지지원 확대추진

공주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13% 인상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올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액을 13% 인상하는 등 위기기구를 적극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기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생계지원 금액을 13% 인상해 1인 가구의 경우 62만 3300원에서 71만 3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인상한다.

의료지원은 예년과 같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유에게 1회 최대 300만원까지(연장 1회) 지원한다.

주거지원은 1회 1~2인 기준 최대 월 29만 9100원(연장 2회)의 임시 주거를 제공한다.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밖에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기구 지원을 위해 10월

'제7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오는 26일 개막

공주시, 전국 최초 '대한민국 알밤박람회 in 공주' 연계 개최



중부권 대표 겨울축제인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오는 26일 개막해 28일까지 3일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공주 알밤과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제7회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장소를 금강신관공원으로 옮긴다. 시는 매년 5만명 이상의 관광 인파가 몰리면서 관광객 안전은 물론 편의시설 확대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소를 기존 아트센터 고마 일원에서 금강신관공원으로 변경했다.

축제는 평일 퇴근 시간을 고려하고 주말 야간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군밤축제의 백미인 대형화회로에서 알밤을 구워먹는 체험에는 지름 2미터의 대형화회로 8개가 준비된다.

긴 알밤뜰망도 120개를 준비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알밤을 비롯해 고기와 꼬치류 등 농축산물을 그릴 위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릴존 시설도 8개 설치된다.

알밤 샌드위치 만들기 등 알밤을 활용한 간식 만들기 체험은 물론 연날리기, 제기차기, 투호 턴지기, 팽이치기 등 디자인 운동 놀이 체험의 장도 펼쳐진다. 특히, 공주알밤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알밤 직거래 장터와 지역 밤을 활용한 밤 기공식품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할 장터도 열린다.

시는 이번 축제 기간 총 35의 알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축제 기간 전국 최초의 알밤박람회도 개최한다. 시는 공주를 대한민국 밤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군밤축제와 연계해 '2024 대한민국 알밤박람회 in 공주'를 열기

로 했다.

박람회 행장은 ▲밥산업 지역 미래관 ▲밥정보관 ▲공주알밤 주제관 ▲밥 디저트 관등 4개의 테마별 전시관이 조성된다.

국내 밤 주요 산지의 대표 품종과 가공상품, 밤으로 만든 다양한 디저트식품 등을 선보이고, 야외 전시장에서는 밤 생산·가공·방제 장비 등을 전시한다.

공주알밤 품평회, 밥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포럼, 유명 요리사와 함께하는 알밤요리 토크가 진행되며, 대한민국 알밤 골든벨(OX퀴즈), 알밤 경매, 경품 추첨 등의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군밤축제와 알밤박람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라며 "알밤의 고장인 공주가 국내 밤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제27대 한국정책방송원 원장(허종대) 퇴임식
2024. 1. 8.(금) ~ 1. 10.(일) 서문 행정관 1층 회의실
한국정책방송원(원장 직무대리 서문 행정관 이하 KTV) 제27대 허종대 원장이 큰 성과를 남기고 퇴임했다.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KTV 전 직원은 재직중 국정총보의 성과 및 대한민국 정책재벌'로서 역량제고 등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허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 퇴임
한국정책방송원(원장 직무대리 서문 행정관 이하 KTV) 제27대 허종대 원장이 큰 성과를 남기고 퇴임했다.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KTV 전 직원은 재직중 국정총보의 성과 및 대한민국 정책재벌'로서 역량제고 등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 위해 협력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위해 협업검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스케일링 등 아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펄렛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일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

하여 치등검사를 실시한다.

이ulong,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펄렛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펄렛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대전도시공사 구암다가온

행복주택, 청약열기 뜨거워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가 작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청약결과 총 425세대 모집에 3,063명이 신청하여 전체 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공급 대상별로는 청년이 176세대 모집에 2,670명이 신청하여 15.17대 1로 가장 높았으며, 공급세대 유형별로는 29D형(청년)이 4306대 1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인기는 구암역·유성IC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점과 주변 부동산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임대료, 11가지의 다양한 세대 유형 제공으로 수요자 맞춤형 설계, 네모장고·세탁기·기구 등 풍부한 옵션 제공 등의 많은 장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은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4개 동에 21~44㎡ 등 다양 한 면적의 425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내달 9일 준공 예정이며, 4월 중 계약체결, 4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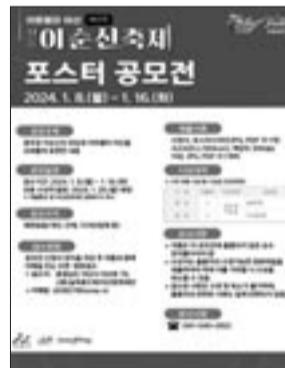
대전교육청, 「꿈길키움」전환기 진로캠프 실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설행동) 진로전략지원센터에서는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90명을 대상으로 「꿈길키움」전환기 진로캠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홀랜드 진로적성 검사」 등 진로·흥미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개발을 위한 자신의 인지적·정서적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철도공단, 제10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및 워크숍 개최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10일 제10기 기술지도 설계심의분과위원(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 1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결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위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의를 다짐하는 청렴서 약서 제출을 통해 청렴을 결의했다.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 개최

8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진행



를 발굴해 축제의 대표 포스터로 활용하고자 8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포스터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

4월 24일(수)부터 4월 28일(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스터 공모전은 전국 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단 홈페이지(cultureaa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신청서와 포스터를 이메일(jh0827@koreatv.or.kr, 우편아산시 아산로 79, 2층 이산문화재단)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수상 결과는 1.29.(월) (재)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에는 상금 200만 원, 입선 2명에게는 상금 각 50만 원씩 수여된다. 수상작은 협의에 따른 일부 수정 등을 거쳐 대표 포스터 등의 디자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아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4월에 개최될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포스터를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아산문화재단(041-540-2922)로 문의하면 된다.

이산=리량주기자

한국효문화진흥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친환경 경영 실천

한국효문화진흥원(이하 한국효진)은 200㎾급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중립과 공공기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동참 및 이행을 위하여 「2023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금 3억6천6백만원(국비)50%,

시비50%를 지원 받아 추진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효진은 연간 전기료 8,000만원 중 50%가 절감된 4,000여만원의 전기료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ESG(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에서 환경(Environment) 부분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한국효문화진흥원 김기황 원장은 "이번 사업이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각종 환경문제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설물의 에너지 절감 선도로 ESG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은행은 어린이집 원생들이 고사리순으로 모은 뜻깊은 후원금으로 많지 않은 후원금이지만 보호아동이 작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숙 어동보육과장은 "우리 시에 힘들고 어려운 어동들이 많은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셔서 감사드린다. 후원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생들과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숙 어동보육과장은 "우리 시에 힘들고 어려운 어동들이 많은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셔서 감사드린다. 후원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생들과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가정위탁 아동 59가정 73명에 대하여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안전확인, 양육환경 점검 등 사후 지원을 하고 있다. 배준호, 배서준, 변준수, 신상은 이동원 등이 팀에서뿐 아니라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다.

김정환기자

대전하나시티즌, 구단의 미래 책임질 김한서-노동건 영입

대전하나시티즌이 구단의 미래를 이끌 신인 선수 2명을 영입했다.

대전하나시티즌 U-18 출신 김한서는 우선지명을 받은 뒤 전주대에서 2년을 보내고 올 시즌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2023 U리그(대학리그)」, 「동영 기축제 대학 축구대회」, 「백두대간기 추계 대학 축구대회」, 「태백산 대학 축구대회」 등에서 38경기에 출전하며 기량을 발휘시켰다.

김한서는 넓은 시야를 활용한 볼 배급 및 공간 전환이 탁월하며 특유의 적극성과 활동량으로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기동 능력도 뛰어난 선수이다. 또한 U-22세 의무 출전 규정에 부합하는 U-22세 지원으로 전술적으로 활용도가 높다.

김한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전 입단을 꿈꿔왔다. 첫 프로 무대를 대전에서 시작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다. 코칭 스태프, 선배들에게 많은 배움과 조언 통해 좋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노동건은 186cm의 건장한 체격 조건을 바탕으로 대인마크 및 제공권이 우수하다. 또한 빠른 스피드와 인터셉트를 통한 공수

전환과 빌드업 능력도 뛰어나 공격 전개과정에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노동건은 "대전에서 K리그에 첫 도전을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다. 믿고 기회를 주신 만큼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환기자

아산시, 지정기탁으로

가정위탁아동 후원

아산시는 한들지웰어린이집(원장 김미정)으로부터 가정위탁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해 써달리며 지난 9일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은 한들지웰어린이집 원생들이 동전 모으기, 빗발 상주판매, 원장과 직원들이 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우리 시 어려운 아동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뜻으로 아산시를 통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전달했다.

김미정 한들지웰어린이집 원장은 "원생들이 고사리순으로 모은 뜻깊은 후원금으로 많지 않은 후원금이지만 보호아동이 작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숙 어동보육과장은 "우리 시에 힘들고 어려운 어동들이 많은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셔서 감사드린다. 후원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생들과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이완섭 시장 15개 읍면동방문… 지역 곳곳 목소리 청취

1월 26일까지 '시민과 대화'

이완섭 서산시장이 15일부터 26일까지 지역 곳곳의 목소리를 듣고자 시민과 대화에 나선다.

대화 일정은 1월 15일 대산읍(오후)을 시작으로 ▲16일 인지면(오전), 부석면(오후) ▲17일 팔봉면(오후) ▲18일 지곡면(오전), 성연면(오후) ▲19일 음암면(오전) ▲22일 운산면(오후) ▲23일 해미면(오후), 고북면(오후) ▲24일 부춘동(오전), 동문1동(오후) ▲25일 동문2동(오전), 수석동(오후) ▲26일 석남동(오전) 순이다. 대화는 각각 오전은 10시, 오후는 2시부터 시작하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



우승정보대학·명석고등학교 스포츠의·과학 교육 협약식 우승정보대학(총장 이달영)은 명석고등학교와 스포츠의·과학 교육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문운동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고등학교체육활성화방안 지원에 관한 사항 ▲진로체험과 우승정보대학진학에 관한 협조사항 등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남대-경찰대 업무협약 체결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와 경찰대학(학장 김수환)은 10일 오후 3시 한남대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학술 및 행정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교는 학술, 정보, 교육 시설, 인력 등을 상호 교류하는 한편 각종 교육과 연구사업의 공동 참여, 지원 협력을 약속했다. 노한 교육과 연구 장비,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호서대 '교육 질관리 체계 확대' 설명회 개최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대학교육의 변화에 따른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질관리 체계 확대 구축 설명회'를 10일 아산캠퍼스에서 개최했다.



배재대 주시경교양대학 'POU 온라인 글쓰기 퓨터링 10주년 워크숍'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학장 김혜경)은 지난 5일 대학 스마트배재관에서 'POU 온라인 글쓰기 퓨터링 10주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배재인행(雁行)교육의 대표적인 글쓰기 퓨터와 담당 교원 발표로 이뤄졌다.



한동권 목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지역복지사업 평가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대전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한동권 목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전상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업 실무담당자 교육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10일 오후 2시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 인사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귀속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교육은 지역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연말정산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됐다.

대전 대 공연예술콘텐츠학과, 지방대학활성화사업 산업직무 현장학습

콘텐츠기업육성센터 현장학습 큰 '호응'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공연예술콘텐츠학과(학과장 김지연 교수)는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지방대학활성화사업 산업직무 현장학습으로 대전정보보문학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방문하여, 영상회사, 1인 미디어 캐릭터 개발 등 20여 개 입주 기업 견학과 진행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입주 기업 주)콜라보에어 괴오성 팀장의 '영상에서 회사까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는데, 강연자는 '영상회사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과 대전에서 창업 시의 장점 등 체험을 통한 현실적인 내용'을 대학생들 트렌드



에 맞는 강의로 참여 학생들은 "이번 현장학습과 특강으로 대전에서도 일할 곳에 대해 현실적인 체험과 진로 선택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희망이 생긴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장학습은 콘텐츠 코리아 랩

이미어 창출 공간 등이 있어 시설에 대해 호감을 표출", 김기현 학생은 "4년 동안 사무실공간 대여와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고, 대전에 콘텐츠기업육성센터가 있고, 센터에 대한 업무 정보도 알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우리 학생은 "지방대학활성화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대전의 기업 현황과 육성사업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수도권으로 진출만을 생각하는 청년들도 대전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공연예술콘텐츠학과는 2023학년도부터 영상 콘텐츠 전공 트랙을 신설하여 신입생을 선발했다.

김정환기자

국립공주박물관
 카카오톡채널 개설

국립
 공주박
 물관(관
 장 이정
 근)이 국
 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홍보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카카오톡채널 개설을 홍보하기 위한 채널 추가·공유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이벤트는 '친구 맷기' 이벤트로 국립공주박물관 채널을 주관한 사람 중 2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한다.

2차 이벤트는 '소문내기' 이벤트로, 국립공주박물관의 이벤트 게시글을 개인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사람 3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과 박물관 굿즈를 함께 증정할 예정이다.

종 이벤트 기간은 1월 11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며, 참가 방법은 국립공주박물관의 누리집 및 공식 SNS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뮤지엄로 26-20 대전문화艺术

LG화학 '심봉사회' 장난감구입비 500만 원 전달



LG화학 '심봉사회'(회장 김선학)에서 9일 서산시가족센터(센터장 류순희)에 장난감구입비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난감구입비는 LG화학

대산공장 구매팀·불류팀·경영 관리팀 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분을 기부하여 모금된 후원금으로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장난감대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서산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류순희 센터장(서산시가족센터)은 장난감이 부족했는데 이번 후원이 단비가 되었다며 후원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서울-아산 천안시청 사거리 중간정차 정류장 설치 협약식

(동양고속)



천안시의회 이종답 부의장은 10일 오후 4시 천안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천안시 시내버스 3사 대표들과 '서울-아산(동양고속) 천안시청 사거리 중간정차 정류장 설치 협약식 및 간담회'를 이종답 부의장이 지난 1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함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불당 1, 2동 및 백석동, 쌍용동 20만 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사항이었던 서울-아산(동양고속) 버스 중간정차 정류장 설치를 이종답 부의장이 지난 1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함에 따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종답 부의장은 "고속버스가 중도 정차하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셨을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중간정차 정류장이 설치되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용 가능하도록 정류장 설치 관련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양고속 관계자는 "이종답 부의장의 지난 1년여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의 협조를 통해 천안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고속버스 중간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투명한 행정으로 2023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현, 이하 진흥원)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

수는 준정부기관 유형 평균 점수 95.4점 보다 3.19점 높은 점수이다. 특히 진흥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사전정보공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태현 원장은 "이번 평가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승병배기자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인니 교통부장관과 밸리 경전철(LRT) 사업 협력 논의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부디 까야 수마디 교통부장관(왼쪽 첫 번째)를 지난 9일 공단 수도권본부에서 만나 철도협력 논의를 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작년 10월 주케이알티씨, 주삼안,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밸리 경전철(LRT) 타당성조사(FS) 용역을 수주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종료 후 인니 정부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경전철(LRT) 건설 기본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의 향기



손영란 시인의 '베로니카 아뜨리에'

쉼터에서

토끼풀숲에 애아
네잎 행운 찾다가

손영란 作

아기 손톱만한
풀꽃과 마주쳐 눈길 끈다

앉아야 보이고 밟히면서
피어나는 안쓰러운 꽃

비람이 간들면
수줍게 얼굴 내미는

하늘빛 닮아 청아한 꽃

시의 향기



장문자 시인의 '님 그리는 달을 연가'

무궁화

무심 할 줄 알았던
그 사람으로부터
사나브로 날아온
낭보 맘

궁금하던 소식
하모니카처럼
살가웠노라

화기애애한 이내 맘
들킬세라
무궁하게 화들짝 피었네

시의 향기



전소연 무용가의 '얼쑤 좋다야!'

님이시여

당신님
머무는 세상

내가 함께 있어
이렇게 행복할줄이야
님이시여!

시의 향기



이애순 시인의 '연보라 엽서'

그리움

십일월 해질 무렵
찬비가 비람 타고
가슴에 파고 듈다

계절의 무상함이
한 획 긋는 허루
햇살이 따스하다

빛바랜 떡갈나무
시간에 의지 한 채

구걸초비라보는
눈빛이 아련하다

벗방울 소리에
숨 내보내며
어둠이 절어간다

홍성군, 지역건설업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박차

1월 22일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 설명회 개최

홍성군은 지역건설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의 입찰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유령 회사'에 철퇴를 가할 계획으로 타지 자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군은 우선 22일 오후 2시 홍주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건설업체(전

문건설업, 종합건설업을 대상으로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는 건설공사 입찰 시 계약부서에서

실시하는 적격 심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며, 홍성군에서 벌주한 건설공사 중 추정가격이 전문건설 2억 이상, 종합건설 4억 이상인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개찰 1순위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 항목은 건설업 등록 기준 인 자본금, 기술인, 사무실 등이며, 서류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업체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부적격 심사가 확 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입찰 기회를 박탈하고 동시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순광 건설교통과장은 "입찰단계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재하도급, 인건비 체납, 공사지연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여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침해하는 유령회사의 입찰 참여를 줄여 경쟁률을 감소시키면서 건설한 지역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예산군 오가면,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이은대 오가면 분회장 취임

“노인 권리 신장 위해 헌신할 것”

예산군 오가면은 대한 노인회 예산군지회 류근성 오가면 분회장의 유고로 인해 제8대 이은대 오가면 분회장을 선출했다.

오가면 분회 임원 및 각 마을 노인회장, 총무 등 60여명은 회의를 개최하고 제8대 오가면 분회장을 선출했다.

이용성 오가면장은 “그동안 헌신과 열정으로 어르신 복지증진 및 권리 신장을 위해 힘쓰신 류근성 분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이은대 분회장께서는 그간의 풍부한 경험과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오가면 노인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사설

북 NLL 포격에 서해 접경지역은 불안

북한이 5월과 6월에 이어 7월 또다시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포격해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서해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이 5일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 포 200여 발을 사격하자 우리 군은 서북도서 해병부대에서 K9 자주포와 전차포로 대응했다. 북의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사격이 예고되면서 인천과 백령·연평을 오가는 배편이 전면 통제됐으며, 연평도·백령도·대청면 서해 북단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서해 NLL 인근은 북한의 대형 국지도발이 자주 일어난 지역으로 제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북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서해5도 주민들의 불안감도 증폭됐다.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같은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북은 정반대 행태를 보인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북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강도 높은 도발을 감행해 과거 연평도 포격 같은 접경지역에서의 직접 도발도 예상 가능한 만큼 지역주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접경지역은 남과 북을 이어 주는 통로이자 남북 교류의 거점 지역이다. 따라서 접경지역에 안전과 평화가 담보되어야 남북 협력관계 복원도 기대할 수 있다. 남북한 대립과 긴장, 갈등은 남북한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정신 차리고 북의 협박과 도발 아래 놓인 우리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의 위협에는 정부를 중심으로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국가 안보를 정장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은 것은 없어야 한다.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절차히 대비할 때 진정한 평화를 향한 대화와 협상의 문도 열린다. 남과 북은 서로 간 쌓인 불신과 적대 감정을 걷어내고 평화체제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시행하는 '세컨드 홈' 정책

정부가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인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말에 세컨드 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89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어 해당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정책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기도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전국의 주택거래 현황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20년 대비 2022년에는 거래량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직면 과제는 인구감소로 인해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는 심각한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인구 소멸의 직격탄을 맞는 곳은 인구 감소가 뚜렷한 지방부터 시작될 것이며 이는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발전이 정체되고 점차 슬럼화 되어가는 곳이 많다. 농어촌 지역에는 방치된 빙집도 많은 실정이다. 경제활동의 근거가 없고 생활환경이 좋지 않으면 지역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유입인구가 없는 상황에서 발전이 정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세컨드 홈 정책이 활성화되면 거주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히 지방 소멸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세컨드 홈의 구매 요인으로 인해 여가나 관광, 은퇴 수요가 있는 지역에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투기 가능성이나 구매에 따른 지역 편차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읍·면·리 단위로 지역을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참고할 만하다. 추후 발표되는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예상되는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활성화로 예산군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경제적 손실 예방 효과 기대

예산군은 인허가 민원의 사전 심사 청구 제도를 운영해 민원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한다.

사전 심사 청구 제도는 개발 행위 허가 등 인허가 민원 사무 정식 신청 전 기초 자료로 약식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민원인은 관련 법률 규정의 선행 검토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으며,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 수행상 안전성 보장 및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대상 사무는 △개발 행위 허가 △산지 전용허가 △농지 전용허가 △농지 전용신고 △건축 신고(200m² 미만) △건축 허가(200m² 이상~1000m² 미만)

예산 = 박제화 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E-mail : d-mail@naver.net
▶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비른신문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김우영 · 김성식 · 김종복
전화내선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내선 042)538-1602	광고신청내선 042)538-1603	구독료 월1만 5000원

등록번호 : 대전기 00017 인쇄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투데이

16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대전투데이

DT 대전투데이 연중 환경 캠페인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 온난화’ 지금 멈추지 못하면, 우리들의 내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대전투데이

후 원 |

한국장래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대생리콜란
대표이사 김경태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 주식회사
www.vktech.co.kr

(주) 제이콘
JCON

충청환경에너지(주)

주식회사 레일웍스
CONSTRUCTION & MAINTENANCE

INSGREEN 주식회사
인스그린

More than Chemistry
롯데제과

Hanwha

TPE
Technopark

대생리콜란
주식회사

제이엔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성개발산업

에이치디포장건설주식회사